

클럽교회 소식



1. 잠실중앙교회 어와나 입단식.

2009년 4월 25일 토요일 서울의 잠실중앙교회 어와나가 입단식을 거행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학부모 약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물티 40명 T&T 약 40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으로 출발하는 멋진 예식이였습니다. 담임목사님 앞에서 선서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속에서 환한 미소와 함께 굳은 다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입단 선서 이후 부모님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단복을 입혀주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 잠실 중앙교회 어와나의 멋진 출발을 축하 합니다.

1. Jamsil JungAng Church Awana Opening.

On April 25, Samsil JungAng Church Awana opened. 40 Sparkies, 40 T&T clubbers attended opening ceremony with 50 parents and its senior pastor. The clubbers pledged themselves to become an approved workmen. Please welcome and pray for Jamsil JungAng Awana club.



2. 서울지역교회 친선경기

지난 6월 7일과 14일에 서울지역에 있는 어와나 클럽교회들이 모여 친선 게임즈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친선경기에는 예능교회, 장석교회, 헤브론교회, 본교회, 천성교회, 남서울교회, 대양교회, 백석대학교교회, 헤브론교회등 9개 교회 약 300명의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모여 친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선경기를 통해 어와나 게임즈의 실전을 준비함은 물론 지역교회와 교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교회들은 이번 모임을 계기로 여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연합행사를 추진한다는 아름다운 나눔의 후문이 있었습니다.

2. Goodwill match for AwanaGames in Seoul area

On June 7 and 14, Seoul area club churches (YaeNeong Church, JangSuk Church, Hebron Church, Bon Church, Chun Sung Church, Nam Seoul Church, Dae Yang Church and Baik Suk Church) had goodwill match for AwanaGames. Total 300 clubbers attended and shared friendship. They will also set up plan for joint program this summer.



Club Church News



3.분당지역교회 친선경기

지난 일 할렐루야 교회에서 분당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 친선경기를 치루었습니다. 할렐루야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친선경기에는 약 300여명의 어린이와 선생님 약 6개 교회가 모여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임즈를 앞두고 정식트랙에서 경기를 경험하고 싶었던 교회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친선경기 였지만 어린이들의 열정과 열심은 진짜 게임즈 못지않았다고 하는데요, 분당지역의 교회들이 더욱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자라게 되는 어와나 클럽으로 성장해 가길 기도 합니다.

3. Dae Kong Won Church Opening

On June 21, Dae Kong Won Church Awana opened. Dae Kong Won Church is located near Seoul Great Park. This church members are pleased to start Awana club for their children to memorize Bible verses and to have fun in Game Time. Even though the start is late, they hope to become the first and the best Awana club in Korea. Please welcome and give big hands to Dae Kong Won Church Awana clubbers and leaders.



4. 대공원 교회 어와나 입단식.

2009년 6월 21일 대공원 교회에서 어와나 입단식이 있었습니다. 대공원 교회는 서울대공원 옆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대공원교회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어와나를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한결 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게임시간 어린이들의 환한 모습과 핸드북시간 진지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는 어린이들을 많이 보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비록 어와나 시작은 늦었지만 서울지역에서 제일가는 어와나, 전국에서 제일가는 어와나가 될 것을 다짐하며 멋진 출발의 예식을 하였습니다. 대공원교회 어와나의 아름다운 비상을 기대합니다.

4. Goodwill match for AwanaGames in KyungKi area

On June 21, KyungKi area club churches also had goodwill match for AwanaGames in Hallelujah Church. Total 300 clubbers and leaders attended this match and had opportunity to participate games on the official game-track. It is our prayer that these Awana churches united as a Great Body of Christ and helped each other for the Kingdom of God.

